우암학원 창학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142호 1판 (음력 11월 2일)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MASERATI Quattroporte

옛 전남도청 5·18 총탄 흔적까지 복원

문광부, 복원 설계 초안 공개

본관·별관 등 6개 건물·주변
80년 5월 당시 원형 되살려
접근 편의시설 보강에 역점
5·18단체 등 여론수렴 계속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의 설계 초안이 공개됐다. 옛 전남도청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될 예정인 가운데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려 최후 항쟁지인 옛 도청의 원형을 살리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도청 건물에서 발견된 다수의 탄환 흔적 또한 내년께 전문 업체에 의뢰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만행과 학살이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문화체육과광부는 27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설계 방향과 추진 일정,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5월 단체와 오월어머니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원공사를 전담한 ISP건축사 사무소 관계자가 설계 방향을 비롯해 추진 일정, 설계내용 등을 설명했다.

설계의 기본 방향은 5·18 관련 단체와 지역민 의견을 반영해 80년 5월 당시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추가 복원이 용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보강방안에 따른 구조를 검토하고 장애인, 노인 그리고 임산부 등의 접근에 따라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이 같은 전제는 복원사업 개념이 저해되지 않는, 다시 말해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데 방점이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옛 도청은 7460.33㎡ 규모로 본관 및 별관을 비롯해 모두 6개 건물과 주변이 복원된다. 예정공사비는 211억 2000만원으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이다. 전시 콘텐츠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설계기간은 2020년 9월 25일까지 착수일로부터 330일간이며 공사 범위는 1단계(철거 및 복원)와 2단계(철거 및 복원)로 나뉜다. 1단계는 방문자센터와 미디어 월 철거, 도경찰국을 비롯한 민원실, 도청 회의실 복원 및 연결통로 개축과 도경찰국 앞마당과 회의실 측면 기념공간 조성이 포함됐다. 2단계는 도청본관과 별관, 상무관 복원 및 연결통로 개축, 전면 지하 엘리베이터 철거, 도청본관 앞마당 및 상무관 추모공간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적인 계획에 따르면 도청 본관은 중앙에 설치된 화장실, 승강기실, 공조실, 장비실 및 전시시설은 전면 철거되고 원형 복원된다. 또한 도청 회의실(좌측), 도청 별관(우측)에는 철거된 연결통로를 사무실·복도로 복원한다. 전면 철거된 별관의 4개층은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전당으로 진입하는 2개층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도청 회의실은 전기 통신 등 일부 설비 시설을 존치하면서 내부 칸막이를 복원하며 연결통로 부분은 도청 본관(우측면), 경찰국 민원실(배면)은 복원하되 경찰국 민원실은 전체 복원할 예정이다.

80년 항쟁 당시 가장 많이 훼손된 경찰국 본관은 방문자센터 철거 후 경찰국 본관 출입구 캐노피 등을 원형으로 복원한다. 이에 따라 건물 좌우측 승강기 화장실은 철거되며, 중앙부는 승강기실을 신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교적 훼손이 덜 된 상무관은 일부 변형된 부분만 공사를 진행하고 마감재 등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복안이다.

용역사 관계자는 "복원추진단을 통해 항쟁 당시 건물의 내·외부 사진을 수집해 이를 토대로 복원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복원 계획은 내년 10월경 공사 발주, 2022년 12월경 복원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도형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이번 설계 초안은 기본적으로 훼손되거나 손상된 건물을 가급적 원형으로 되살리는 부분과 민주주의의 상징성과 가치성을 영구적으로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설계안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5·18단체와 시민단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사 관계자가 향후 설계 방향과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980년 5·18 광주항쟁 당시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2005년 10월 께 옛 전남도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보안사 5·18사진첩 1~4권 어디에? ▶6면
정찬주 다큐 소설 '광주 아리랑' ▶9면
금호고 고교축구 왕중왕전 우승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여수 경도 개발 5년 빨라진다

미래에셋, 매매대금 2925억 내년 4월까지 납부키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 19일 1·3면〉과 관련, 투자자인 미래에셋이 개발공사 소유 경도 시설·부지 매각대금을 4년 빨리 납부하고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경도 접근성을 높일 연륙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됐다. 경도 개발사업이 1조(兆)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이 조속하게 현실화되면 전남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27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경도 해양관광단지(213만158㎡·64만4000평) 조성사업과 관련, 이날 개발공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925억원을 내년 4월까지 납부키로 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2017년 전남개발공사 소유 경도 내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부지를 3433억원에 일괄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차례에 걸쳐 계약금(52억), 중도금(2019년 12월 31일 950억 납부), 잔금(2431억·2024년)을 완납키로 했었다.

미래에셋은 그러나 이날 중도금 950억과 잔금 등 2925억원을 내년 4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나머지 개발공사 소유 콘도(100실) 매각 대금 456억원의 경우 분양한 콘도 회원권 반납이 완료되는 2024년에 지급키로 했다.

중도금 납입 시기를 늦췄지만 나머지 잔금 지급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에 경도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시행권을 조속히 확보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남개발공사측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측은 사업 시행권을 확보한 뒤 경도 연륙교(연장 1.52㎞·폭 13.8m) 개통(2023년 12월) 시기에 맞춰 관광객을 맞는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관광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변경된 실시계획은 2020~2024년(1단계), 2024~2029년(2단계)으로 나눠 1조원을 투입, 호텔·콘도·빌라, 컨벤션센터, 쇼핑센터(~2024년), 해상케이블카, 마리나, 워터파크(~2029년) 등을 조성키로 했던 기존 방안 대신, 해상케이블카를 2024년까지 조성키로 했고 인근 송도·노도에 빌라 콘도를 조성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사업이 현실화되면 5년 뒤에는 골프장 위주로 운영되던 여수 경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 전체가 해양복합관광단지로 변신하게 된다는 게 전남개발공사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부산 2022년엔 2시간대에 간다

목포~보성 전철화 적정 판정

오는 2022년에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받아 오는 2022년 완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뒤면 목포~부산 간 2시간 40분대 왕래가 가능해진다.

목포~부산 간 남해안철도 중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복선 전철화가 완료 또는 공사 중이다.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은 전철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개설 구간인 목포~보성 간의 경우 단선 비전철로 추진 중이다. 열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철도교통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철화가 절실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남해안철도 건설과 전철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서 전철화 사업비 반영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 올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06억원을 요구했으나, 조사결과 설계비 등 72억원이 조정된 1434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20년 하반기 일반철도와 전철화를 동시에 시공, 2022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3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무궁화호 기준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33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4시간여가 줄어든 셈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에서 보성까지 전철화가 이뤄져 해남, 강진, 장흥, 진도, 완도 등 도민들이 양질의 철도교통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앞으로 순천까지 복선 전철화와, 전라선 익산~여수 고속철도, 서해안철도 건설 등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의 새로운 바람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로 미래로 웅비하는
생명의 땅 으뜸전남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정 전남「블루 이코노미」6대 프로젝트
Blue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
Blue 투어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벨트
Blue 바이오 바이오-메디컬 허브, 전남
Blue 트랜스포트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중심, 전남
Blue 농수산 미래 생명산업의 메카, 전남
Blue 시티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란?
전남의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청정 자연과 수천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새천년을 이끌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전략입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